

세무회계저널
제17권 제2호 2016년 4월 pp.9~34
한국세무학회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

신상이** · 전홍민***

<요 약>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를 계산할 수 있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900개의 기업/연도 관측치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노동조합 영향력의 대용치인 노동조합유무, 노동조합가입률, 노동조합 상근직원률과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을 이용한 분석에서 노동조합 유무와 조세회피성향 사이에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평균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무노동기업에 비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조합가입률과 조세회피성향 사이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노동조합가입률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조합 상근직원률과 조세회피성향 사이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노동조합의 상근직원률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증가할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노동조합은 임금극대화 등 조합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고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노동조합이 경영자의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감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조합이 조세회피성향과 관련해서는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이는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노동조합의 영향력, 임금극대화, 조세회피

*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을 통해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상산세라믹에 감사드립니다.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석사과정, ssyend@naver.com, 주저자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hmchun@cb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5년 6월 29일 1차수정일 2015년 12월 18일 2차수정일 2016년 1월 28일

게재확정일 2016년 4월 22일

I. 서 론

본 연구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노동조합 영향력의 대용치인 노동조합유무, 노동조합가입률 및 상근직원률과 조세회피성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국기업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노동조합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룬 국내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노동조합은 1990년대 이후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 중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이해관계자 중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조합은 그 전문성을 키워왔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자의 재무의사결정에 중추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해당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었고 노동조합이 회계적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최정운 · 배길수 2011),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고영우 2011), 공정공시에 미치는 영향(안태식 외 2011) 등이 있어왔다. 하지만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해당기업의 세무의사결정의 하나인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된 선행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노동조합의 존재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노동조합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관점은 노동조합을 이 익단체로 간주하여 조합구성원의 임금을 극대화하는 노동조합의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선행연구는 노동조합이 임금을 증가시키며(Lewis 1986 ; 김장호 2008), 주로 회사가 노동자의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흐름을 생성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노동조합이 기업의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나누는 교섭에서 성공한다면 노동조합이 조세회피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주주는 잔여적 청구권자(residual claimant)지만 노동자는 고정적 청구권자(fixed claimant)로서 위험 채권자와 유사하다(Faleye et al. 2006). 주식회사는 위험투자를 통해 수익과 성장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기업가치 극대화, 주주부의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노동자의 임금은 고정적 성격을 가지게 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주주와 달리 위험회피적 성향이 강한 경제적 유인을 가지게 된다. Chen et al.(2011)은 강성 노조화된 산업에서 기업은 위험투자를 적게 할 것이며, Connolly et al.(1986)은 노동조합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장기적인 영업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투자를 제한한다고 보고하였다. 조세회피는 국세청 벌금, 소송비용, 정치적 비용 등 미래의 불확실한 비용과 관련되어 있다.¹⁾ 조세회피와 기업의 회계투명성 사이에는 조세회피가 증가할수록 해당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저하되는 부(-)의 관계(Chen et al. 2011 ; 강정연 · 김영철 2012)가 있고, 세금회피로 인해 현금흐름이 양호하게 변한다면 위험

1) 비세금비용의 종류에는 재무보고 비용, 대리인 비용, 정치적 비용(political costs) 및 명예훼손에 따른 비용(reputational costs) 등이 있다(Chen et al. 2010).

회피성향을 가진 노동조합은 위험의 대가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것이다. 경영자는 노조원들이 위험의 인식에 대한 보상의 요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조세회피를 감소시킬 가능성도 더불어 존재한다.

두 번째 관점은 노동조합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임금을 극대화하는 이익 단체적 성격을 가진 집단이 아닌 기업지배구조상 중요한 감시기구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Jensen and Meckling(1976)은 소유자(주주)와 대리경영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비용을 제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장치의 예를 들고 있으며, 노동조합도 내부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므로 수익과 비용의 발생에 대해 관여하여 기업의 성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은 경영자의 임금최소화를 감시할 유인으로 경영자에 대한 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에 대해서 파악하고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대해서 이를 이익조정 일환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내부자인 노동조합은 기업의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있어서 외부자보다 상대적 우위를 가지므로 외부자가 알기 힘든 정보를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 경영자는 임금인상의 압박으로 이익을 하향조정할 유인을 갖는데 (Liberty and Zimmerman 1986 ; DeAngelo and DeAngelo 1991 ; 최정운과 배길수 2011 ; 손판도 2013), 그에 반해 노동조합은 임금, 특히 성과급 협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익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감시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노동자의 감시기능이 강화될 경우 기업의 보수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Winnie et al. 2010 ; 고영우 2011). 이러한 노동조합의 임금극대화를 위한 감시기능으로 인해 기업의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켜서 경영자는 조세부담과 임금지급에 대한 자금압박으로 조세회피에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단기적인 시각에서 임금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재무보고이익과 세후 현금흐름의 극대화에만 관심을 가지고 조세회피를 위험으로 인지하기 보다는 선호하거나 미국과 달리 한국의 노동조합의 한계로 인해 기업 지배구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장기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주의적 조세회피를 인지 할 수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영향이 경영자에게 이익극대화에 대한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노동조합이 기업지배구조로서의 감시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기업과 조세회피성향은 정(+)의 관계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와 반대로 노동조합은 내부자로서 기업의 미래와 장기성과에 대해 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노동조합이 장기적인 투자자와 같이 내부이해관계자로서 장기 기업가치나 해당기업의 자기자본비용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주의적인 조세회피행위를 억제한다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기업과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은 부(-)의 관계를 나타낼 가능성도 상존한다. 즉 노동조합의 영향력의 경우, 경영자에게 파업실시 혹은 경영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채널 유지 등을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재무분석가 혹은

은 기관투자자 그리고 언론에게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여서 이를 경영자에게 영향을 주게 하는 간접적인 영향력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내 노동조합의 존재와 교섭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Chyz et al.(2013)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과 조세회피에 관해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조세회피성향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업은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동 연구결과에 대해 Chyz et al.(2013)은 노동조합이 기업지배구조로서의 감시기능으로 경영자의 조세회피전략을 억제시킴으로써 또는 경영자가 노동조합의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r)에서 발생하는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투자 수익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의 특성 및 해당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가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몇 차례의 회계부정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AFL-CIO)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자본 소유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전체 공개기업 지분의 약 26-30%로 미국 투자가능 자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권순원 2005). 이에 비해 한국은 노동자들의 자본 소유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노조가입률과 비슷하지만 한국의 노조가 강성인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노조조직이 대부분 대기업, 금융회사와 공공부문에 집중된 탓에 대형노조숫자는 작지만 대형노조 조합원 수는 전체 조합원 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²⁾ 특히 노동운동이 재벌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금융기관 등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장의 정규직 이익만을 충실히 대변하는 실리적 조합주의 경향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대표성의 문제는 더 나아가 일반국민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도덕적 공감의 획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최영기 2013).³⁾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특성을 지닌 한국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과 조세회피성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 영향력의 대용치인 노동조합유무, 노동조합가입률(Clark 1984 ; 안태식 외 2011) 및 노동조합 상근직원률과 조세회피성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2) 노조가입률이 1989년 19.8%에서 2012년 10.3%로 반 토막 났다고 한다. 2010년엔 한 자릿수(9.8%)까지 감소했다가 복수노조가 도입되면서 그나마 소폭 반등한 것이다. 근로자 10명 중 고작 1명만 노조에 가입해 있는 것이 한국 노동계의 현실이다. 노조 기반이 강하다는 영국(26.0%)은 물론 미국(11.3%), 일본(17.9%)보다 낮다. 그럼에도 한국의 노조가 강성인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노조조직이 대부분 대기업, 금융회사와 공공부문에 집중된 탓일 게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가 숫자로는 4.1%(211개)에 불과하지만 조합원수론 전체의 72.4%(약 129만명)에 이를 정도다. 노동운동이 대형 노조 위주의 ‘그들만의 리그’가 된 이유다...(한국경제 2014.05.09. ‘노조가입률 10%인 강성노조 천국’)

3) 최영기(2013)는 미국이 산업별 또는 직종별 노조의 형태인 반면 한국은 대부분 기업별 노조의 형태를 보이며, 노동조합이 노사관계시스템의 결함을 개선하려 하기 보다는 공격하기 쉬운 기업경영자를 상대로 하여 조직노동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직이기주의에 함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 분석에서 노동조합 유무와 조세회피성향 사이에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고 평균적으로 유노조기업은 무노조기업에 비해서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조합가입률과 조세회피성향 사이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노동조합가입률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조합 상근직원률과 조세회피성향 사이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노동조합의 상근직원률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적 성격으로 임금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세금 후 현금흐름에 더 관심을 가지며, 기업지배구조로서 경영자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기 보다는 단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실리적 조합주의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동조합교섭력이 강해질수록 같은 결과를 보임으로써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우선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실증분석한 연구이다. 노동조합이 기업가치나 이익조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있었지만,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⁴⁾ 둘째,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다양한 기업지배구조 요인이 경영자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노동조합은 기업의 주요이해관계자이자 동시에 주요 정보제공자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된 연구가 부족했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실증연구 결과, 미국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실증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한국의 노동조합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의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셋째, 국내의 노동조합 연구는 자료상의 이점을 가진다. 미국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연구가 산업별 노동조합을 이용하였다면, 국내에서는 사업보고서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별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산업별 자료를 이용할 때 발생 가능한 측정오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점이 있다.⁵⁾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활용이 제한적인 노동조합의 상근직원률을 활용하여 노동조합의 영향

4) 물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공업 분야의 경우 화장품산업의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노동조합이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 기업별 노동조합의 특성이 해당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미국의 선행연구에서 계산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의한 각 개별기업의 노동조합 가입률을 추정할 경우 추정에 의한 오차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기업의 경우 2000년부터 2008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해당기간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노동조합가입률과 같은 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측정오차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의 상근직원률을 활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영향력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측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추가적인 공헌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상근직원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 회사와의 교섭력의 증대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보다 높아질 수 있다.⁶⁾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제Ⅲ장에서는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를 설명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제Ⅴ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해 요약하고, 본 연구의 공헌과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 노동조합에 대한 선행연구

노동조합과 기업의 관계는 생산의 측면에서 협조적인 관계이지만 성과배분측면에서 대립적인 관계를 갖는다. 경영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지만 노동조합은 임금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Karier(1985)는 노동조합의 유무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이 저 이윤과 고 임금을 유발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노동조합이 기업의 부실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Ruback and Zimmerman(1984)은 노동조합과 기업가치 사이에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Connolly(1986)는 노조가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투자를 제한하여 수익을 감소시키고 성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Faleye et al.(2006)은 다른 기업에 비해, 노동조합이 활발한 기업의 경우, 지배 상장회사는 장기자산에 적게 투자하고, 낮은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낮은 노동생산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장호(2008)는 노동조합 유무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임금격차가 존재하였고 IMF 이후 급증하였음을 보였다.

반면 Freeman and Kleiner(1999)는 노동조합은 기업의 부실화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이윤 감소가 노동조합이 기업에 대해서 초과이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노조조직 상태가 변하지 않은 기업과 표본기간 동안 노조가 없다가 생긴 기업들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조직 불변그룹 표본에서 노조기업 여부는 자본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보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변화그룹 표본에서는 노조 더미가 자본수익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기 외(2014)은 노동조합의 존재는 기

6) 상근직원률이 노동조합의 영향력 변수 중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중 상근직원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달하고 회사와의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물리적 혹은 시간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업가치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노조가입비율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나친 경영 개입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의 정서에 영향을 주어 기업가치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노동조합은 경영의 효율성을 악화시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의 관점과 노동조합이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순기능의 관점이 있다.

반면에 선행연구는 노동조합의 이익극대화에 대응하여 경영자는 임금최소화를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Liberty and Zimmerman(1986) 및 DeAngelo and DeAngelo(1991)는 임금협상 시에 경영자는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압박을 가지므로 이익을 하향조정할 유인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손판도(2013)는 기업 경영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 시에 임금협상에 대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현금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존재함을 보고하고 있다. 즉 손판도(2013)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업과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현금보유수준을 비교하였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 비하여 현금보유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노조가입률이 높은 경우 기업은 현금보유를 낮추었으며, 낮은 경우 현금보유를 높이려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노동조합에 대해 기업지배구조상 중요한 감시역할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Jensen and Meckling(1976)은 소유자와 대리경영자간에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을 제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장치의 예를 들고 있다. 노동조합은 내부자로서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있어서 외부자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므로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미래 존속 여부 및 장기성과에 대해 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경영자의 임금최소화를 감시할 유인으로 노동조합은 경영자에 대한 감시를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Schwab and Thomas(1998)는 노동자들이 기업의 내부자로 경영자를 직접 감독함으로써 기업의 정책이나 향후 계획들을 주주들에 비해 빨리 인지하고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Winnie et al.(2010)도 노동조합이 갖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에 주목하였다. 즉 일반적인 경우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이해관계자들은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요구할 것이지만 노동조합의 감시기능이 강화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회계처리에 대한 요구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Chen et al.(2011)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할수록 채권자들이 인지하는 타인자본비용이 감소하는 실증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존재가 채권자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을 제시하였다. Chyz et al.(2013)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과 조세회피에 관해 실증분석한 결과, 조세회피는 노동조합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업은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정운과 배길수(2011)는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회계적 이익조정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회계적 이익조정의 절대적 수준과 노동조합은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익조정 규모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고영우(2011)는 노동조합이 회계처리의 보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식 외(2011)은 유노조기업은 무노조기업에 비해 공정공시 빈도를 감소하려는 유인이 있으나,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강해질 때 공정공시 빈도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2. 조세회피와 관련된 선행연구

Hanlon and Heitzman(2010)은 조세회피에 대해 세금비용을 줄이는 일체의 행위 전체를 조세회피행위로 판단하고 포괄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전통적으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보고하고 있지만 최근의 선행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역할로 간주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선행연구는 국가에 낼 부를 이전하여 주주의 부를 증가시킨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하고 있지만, 최근의 선행연구에서는 조세회피행위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Desai and Dharmapala(2009)는 미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에 대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와 기업가치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 Desai and Dharmapala(2009)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Balakrishnan et al.(2010)은 경영자의 조세회피는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사전적으로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영자와 외부의 정보이해관계자들의 정보불균형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Balakrishnan et al.(2010)는 경영자의 조세회피가 기업의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분산 혹은 이익예측오차와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할수록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가 증가하고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분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는 시장의 정보불균형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Kim et al.(2011)도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경영자의 조세회피와 주가가격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주가가격하락위험(Stock price crash risk)과 경영자의 조세회피가 정(+)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어 조세회피를 활발히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기업의 주가가 폭락할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강정연과 김영철(2012)은 조세회피와 회계투명성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는데 조세회피와 회계투명성이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보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조세회피기업일수록 해당기업의 회계투명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선행연구와 함께 경영자의 대리인 비용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홍민과 박한순(2014)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해당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해당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이 기업의 기회주의적인 조세회피성향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3.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자와 생산의 측면에서는 협조적인 관계이지만 성과배분측면에서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기업의 인건비를 인상시키고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등 경영의 효율성을 악화시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의 관점(Karier 1985 ; Lewis 1986 ; Ruback and Zimmerman 1984 ; Faleye et al. 2006 ; Connolly 1986 ; 김장호 2008)이 있는 반면, 노동조합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순기능의 관점(Freeman and Kleiner 1999, 이명기 외 2014)도 더불어 상존하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의 성과배분측면에서 임금인상 유인이 있는 반면에 경영자는 이익극대화를 위해 임금인상을 방해할 유인을 가진다. 노동조합은 경영자가 이익을 하향조정(Liberty and Zimmerman 1986 ; DeAngelo and DeAngelo 1991)하고 현금보유 수준을 낮추게(손판도 2013)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업지배구조의 장치로서 노동조합의 기업내부자로서의 감시역할(Jensen and Meckling 1976 ; Schwab and Thomas 1998)에 관한 선행연구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감시자로서의 노동조합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Winnie et al. 2010 ; 고영우 2011 ; Chen et al. 2011 ; Chyz et al. 2013 ; 최정운 · 배길수 2011 ; 안태식 외 2011). 조세회피에 관한 최근의 선행연구는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위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alakrishnan et al. 2010 ; Kim et al. 2011 ; 강정연 · 김영철 2012). 특히 Chyz et al.(2013)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과 조세회피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노동자가 감시역할을 수행하고 경영자가 노동자의 이익추구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인해 노동조합이 조세회피에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제한적이었던 노동조합이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노동조합환경과 한국의 노동조합환경의 차이가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노동조합의 영향력에 있어서도 미국과 한국의 노동조합은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크고, 특히 노동조합이 해당 경영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이것도 미국과 한국은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즉 소유경영자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이 미국보다 해당 재무 혹은 세무의사결정에 있어서 제한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이익단체적 성격으로 이익극대화를 추구하여 경영자에게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노동조합이 기업지배구조로서

의 감시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 영향력과 조세회피성향은 정(+)의 관계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노동조합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조세회피성향에 대해서 이를 장기적인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증가할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과 부(-)의 관계를 나타낼 가능성도 상존한다. 더불어 위의 정(+) 혹은 부(-)의 효과가 상대적인 크기 혹은 방향성이 일정치 않아 혼재된 실증결과를 나타낸다면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은 유의한 실증결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따라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정(+) 또는 부(-)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기에 아래와 같이 귀무가설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경영자의 조세회피규모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

III. 연구 방법론

1. 조세회피규모의 측정

본 연구는 기업의 과세소득 조정행위를 Desai and Dharmapala(2009)가 제시한 조세회피규모로 측정하였다.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총 발생액(Total Accruals ; TA) 또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Book-Tax Difference ; BTD)를 이용하여 기업의 조세전략을 검증하였다(Desai and Dharmapala 2009). 그러나 두 변수는 재무보고목적의 이익조정행위를 모두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조세전략을 위한 이익조정을 검증할 시에는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Desai and Dharmapala(2009)가 제시한 조세회피규모의 산출방법을 활용하였다.

Desai and Dharmapala(2009)는 BTD에 기업의 조세회피를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BTD를 기업 조세회피 행위의 대용변수로 이용할 때에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기업의 세무신고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실제 세무보고이익을 알 수 없기에 정확한 BTD 산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BTD의 발생요인에는 세무보고목적의 조세회피행위 이외에 다른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재무보고목적으로 이익조정행위가 BTD의 요인이기 때문에 재무보고목적의 이익조정행위 영향을 제거하여야 세무보고목적의 조세회피행위를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BTD는 회계적 이익조정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BTD를 사용하여 조세회피행위를 산출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전홍민 · 박한순 2014).

가. LTD의 측정

LTD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로 산출되는데, 회계이익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이용한다. 과세소득은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사업년도소득, 과세표준,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하고 있다. 기업의 세무보고이익은 비공개자료이므로 각 사업년도소득과 과세표준은 이용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박승식 외(2006)이 사용한 방법으로 산출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한편, 전규안과 김철환(2008)은 과세소득으로 각 사업년도소득금액, 추정과세소득, 과세표준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세가지 측정방법 중 어떠한 측정치를 이용하는지와 관계없이 LTD의 분포가 비슷하고 세 가지 측정방법에 의해 계산한 LTD를 이용한 회귀분석결과도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박승식 외(2006)이 사용한 방법으로 추정된 과세소득을 이용하여 세무이익을 추정하였다.

아래의 식(1)은 법인세부담액을 해당년도의 세율을 기준으로 추정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식이다. 식(2)는 식(1)에서 추정과세소득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세차감전 순이익과의 차이를 계산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산출하였다.

$$TI = \frac{CTE}{t} \quad (1)$$

$$LTD = EBIT - TI \quad (2)$$

여기에서 CTE는 법인세부담액(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자산(부채) 증감액), TI는 추정과세소득, t 는 법인세율, 그리고 EBIT는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이다.

나. TA 측정

총발생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차감하는 방법과 유동발생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총발생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차감해서 계산하였다.

다. 조세회피규모의 추정

Desai and Dharmapala(2009)는 LTD 중에서 재무상 보고목적으로 행해진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의 대응치로 총발생액 및 재량적 발생액을 활용한 결과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여도 실증분석 결과에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고 총발생액을 활용하여 아래의 식(3)과 같이 조세회피규모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esai and Dharmapala(2009)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될 조세회피규모를 산출하였다.

$$BT_{it} = \beta_1 TA_{it} + \varepsilon_{it} \quad (3)$$

여기에서,

BT :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기초총자산

TA : 총발생액/기초총자산

ε : 잔차

$$TS = \varepsilon \quad (4)$$

TS : 조세회피행위

본 연구에서는 식(3)의 모형을 이용하여 BTD 중에서 TA 로 설명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정하였다.⁷⁾ 추정방법은 산업별, 연도별 자료를 통합하여 고정회귀모형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에 각 회귀식에서 산출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각 개별기업을 대해 BTD 중에서 TA 로 설명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나머지 잔차를 추정하였고, 추정된 잔차부분을 본 연구의 경영자의 조세회피정도를 나타내는 대용치로 사용하였다.⁸⁾

7) Desai and Dharmapala(2006)는 추정과세소득이 (-)인 기업들을 조세회피를 할 유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정과세소득이 0보다 작은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협의의 조세회피개념을 적용하여 결손기업의 경우 부담하는 조세가 없으므로 조세회피유인이 없을 것으로 보아 결손기업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8) 법인세부담액 = 법인세비용 + 이연법인세자산 증가분 - 이연법인세부채 증가분

사업연도	과세표준	법인세율 (주민세포함)	추정과세소득
2002년~2004년	1억 이하	16.5%	$X = \{\text{법인세부담액} - 1\text{억} \times 16.5\% \} / 29.7\% + 1\text{억}$
	1억 초과	29.7%	
2005년~2007년	1억 이하	14.3%	$X = \{\text{법인세부담액} - 1\text{억} \times 14.3\% \} / 27.5\% + 1\text{억}$
	1억 초과	27.5%	
2008년	2억 이하	12.1%	$X = \{\text{법인세부담액} - 2\text{억} \times 12.1\% \} / 27.5\% + 2\text{억}$
	2억 초과	27.5%	
2009년~2010년	2억 이하	12.1%	$X = \{\text{법인세부담액} - 2\text{억} \times 12.1\% \} / 24.2\% + 2\text{억}$
	2억 초과	24.2%	

법인세율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55조에 근거한 세율(주민세포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단계 누진세율로 과세소득의 크기가 커질수록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누진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박승식 외(2006)에서 사용한 추정 과세소득 계산 공식을 활용한다.

2. 노동조합의 영향력의 측정

본 연구는 우선 안태식 외(2011)을 참조하여 기업별 노동조합 유무 및 노동조합 가입률을 노동조합 영향력의 대용치로 활용하려고 한다. 노동조합 유무는 노동조합의 가입인원이 1명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이다. 둘째, 노동조합의 교섭력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조합 가입비율은 노동조합 가입인원수를 총 종업원 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Clark 1984 ; 안태식 외 2011). 특히 미국의 선행연구인 Hilary(2006)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기업별 자료 획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별 노동조합가입비율을 기반으로 이를 기업의 종업원 수로 곱하여 변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측정상의 오차가 매우 클 수 있는 방법이다. 즉 노동조합 가입유무 및 가입률은 산업별 특성 외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생변수이다(안태식 외 2011). 한국에서는 사업보고서상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별 자료 획득이 용이하기 때문에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측정오차의 문제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더욱 정교한 실증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의 대용치로 노동조합 상근인원비율을 고려하기로 한다. 노동조합에서도 특히 상근인원이 증가할수록 해당 기업과의 교섭력이 증가할 수 있고, 보다 적시에 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조합 상근인원비율을 추가적인 노동조합 영향력의 대용치로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TS_{i,t+1} = \alpha_0 + \alpha_1 RATE1_{i,t} (RATE2_{i,t} \text{ or } RATE3_{i,t}) + \alpha_2 LEV_{i,t} + \alpha_3 LNSIZE_{i,t} + \alpha_4 ROA_{i,t} \\ + \alpha_5 CHTA_{i,t} + \alpha_6 CHBTNI_{i,t} + \alpha_7 OCF_{i,t} + \alpha_8 TAXBURN_{i,t} + \alpha_9 ANALCOV \\ + Industry Dummy + Year Dummy + \varepsilon_{i,t}$$

TS : 식(4)를 통해서 계산되어진 조세회피규모.

$RATE1$: 노동조합유무를 나타내는 변수로써 해당 기업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1, 노동조합이 없으면 0인 더미변수.

$RATE2$: 노동조합가입률(=노동조합 가입인원수/총 종업원수).

$RATE3$: 노동조합 상근직원률(=상근노동조합직원수/노동조합직원수).

LEV : 총부채/총자산.

$LNSIZE$: 기업규모로써 시가총액의 자연로그 값.

ROA : 총자산이익률.

$CHTA$: 총자산변화율(=(기말총자산-기초총자산)/기초총자산).

- CHBTNI*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변화율(=(당기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전기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전기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OCF* : 영업현금흐름비율(=영업현금흐름/총자산)
- TAXBURN* : 조세부담측정치(=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
- ANALCOV* : 재무분석가가 해당기업을 분석하고 있는 수.
- Industry & Year Dummy* : 해당기업의 연도별 산업별 더미변수.

본 연구의 모형에 적용된 통제변수로는 기업특성변수로 기업규모, 부채비율 그리고 성과관련 지표로 총자산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조세와 관련한 각종 규제에 노출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하기 보다는 조세유연화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규모와 조세회피성향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박춘래 1999 ; 박미영 2012). Graham and Tucker(2006)는 기업이 부채사용에 따른 조세절감효과는 해당기업이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인데 그에 비해 조세회피를 통한 현금흐름 절감은 비용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부채비율의 경우에도 조세회피성향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업성과인 총자산이익률의 경우 수익성이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조세회피성향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산규모 혹은 부채규모의 절대인 수준 뿐만 아니라 변화율도 기업의 조세회피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김진희 · 정재욱 2006 ; 박미영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규모 혹은 부채비율에 추가하여 자산의 변화율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변화율은 기업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법인세부담액의 변화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법인세평준화가설에 입각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정규언 1993 ; 박미영 2012). 법인세 평준화 가설은 법인세전순이익이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법인세를 감소시킬 유인이 존재하고 법인세전순이익이 감소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감소가 예상되어 추가적으로 조세회피행위를 행하지 않거나 또는 그 정도를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있음을 나타낸다. 더불어 기업의 현금흐름에 따라 조세전략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해서 영업현금흐름 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하고자 한다(박미영 2012). 조세부담측정치의 경우 조세부담이 높은 기업은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할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세부담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통제하였다(홍영은 외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무분석가 수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 행위는 감소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한영희와 김동하 2014). 따라서 재무분석가 수가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의 결정요인으로써 경영자의 조세회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고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및 산업별 더미변수의 경우 연도별 또는 산업별 차이에 의한 회계 또는 세법규정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본 모형에 포함하였다.

4.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유가증권상장기업 및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가. (주)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에서 회계자료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기업
- 나. 회귀분석에 사용될 모든 변수를 구할 수 있는 기업
- 다. 회계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회사
- 라. 금융업종에 속하지 않는 회사
- 마.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가 입수 가능한 기업⁹⁾

조건 ‘다’는 횡단면분석을 위해서 적용되었으며, 조건 ‘라’는 금융업종의 재무제표 양식과 회계처리의 방법 등이 일반 업종과 상이하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조건 ‘마’에 관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직접 수집하였다. 상기한 조건을 만족하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총 1,900개 기업/연도 관측치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¹⁰⁾

IV. 실증 결과

1. 기술통계량과 일변량 상관관계 분석

<표 1>에는 모형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보고하였다.¹¹⁾ 먼저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조세회피성향(*TS*)의 평균(중간값)은 각각 $-0.01(-0.01)$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변수인 노동조합 영향력의 대용치인 노동조합유무(*RATE1*), 노동조합가입률(*RATE2*)과 상근직원률(*RATE3*)의 분포를 각각 살펴보면 평균(표준편차)는 각각 0.55(0.50), 0.25(0.28), 0.00(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에 포함된 기업특성변수인 부채비율(*LEV*), 기업규모(*LNSIZE*), 총자산이익률(*ROA*)의 평균(중간값)은 0.42(0.43), 26.00(25.74), 0.07(0.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총자산의 변화율(*CHTA*),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화율(*CHBTNI*)은 0.12(0.09), 0.15(0.05)

-
- 9) 본 연구는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전체 상장기업에 대해서 의무상장기한인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 10) 표본의 연도별 및 산업별 구성을 확인해 본 결과, 분석기간 동안 연도별 그리고 산업별로 표본수가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1)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에 대해서 상하 1% 내에서 조정(winsorize)하여 극단치의 효과를 최소화 하였다.

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OCF*)은 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금부담율(*TAXBURN*)의 평균은 24%, 재무분석가수(*ANALCOV*)의 평균은 6.81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표 1>은 주요 변수에 대한 평균을 포함한 기술통계량을 나타낸다.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1%	25%	중간값	75%	99%
<i>TS</i>	-0.01	0.06	-0.13	-0.04	-0.01	0.02	0.10
<i>RATE1</i>	0.55	0.50	0.00	0.00	1.00	1.00	1.00
<i>RATE2</i>	0.25	0.28	0.00	0.00	0.10	0.53	0.76
<i>RATE3</i>	0.00	0.01	0.00	0.00	0.00	0.01	0.02
<i>LEV</i>	0.42	0.17	0.12	0.28	0.43	0.56	0.70
<i>LNSIZE</i>	26.00	1.51	23.85	24.84	25.74	26.95	29.27
<i>ROA</i>	0.07	0.05	-0.01	0.03	0.06	0.10	0.17
<i>CHTA</i>	0.12	0.15	-0.09	0.01	0.09	0.19	0.48
<i>CHBTNI</i>	0.15	0.95	-1.64	-0.32	0.05	0.44	2.68
<i>OCF</i>	0.09	0.07	-0.05	0.04	0.08	0.13	0.24
<i>TAXBURN</i>	0.24	0.11	-0.03	0.19	0.26	0.30	0.44
<i>ANALCOV</i>	6.81	5.82	1.00	2.00	5.00	11.00	19.00

주) *TS* : 조세회피측정치로써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로부터 총발생액에 대한 연도별 그리고 산업별 회귀식에 대한 잔차를 활용하여 계산된 값. *RATE1* : 노동조합유무를 나타내는 변수로써 해당 기업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1, 노동조합이 없으면 0인 더미변수. *RATE2* : 노동조합 가입비율은 노동조합의 가입인원수를 총 종업원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Clark 1984 ; 안태식 외 2011). *RATE3* : 상근 노동조합직원수를 나타내고 상근노동조합직원수를 노동조합직원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LNSIZE* : 기업규모로써 시가총액의 자연로그 값. *ROA*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CHTA* : 총자산변화율. *CHBTNI*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변화율. *OCF* : 영업현금흐름비율=(영업현금흐름/총자산). *TAXBURN* : 조세부담측정치. *ANALCOV* : 재무분석가가 해당기업을 분석하고 있는 수.

<표 2>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중요 변수들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변수인 노동조합 영향력의 대용치인 노동조합유무(*RATE1*), 노동조합가입률(*RATE2*)과 상근직원률(*RATE3*)과 조세회피성향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중 노동조합가입률(*RATE2*)의 경우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조세회피성향은 기업규모(*LNSIZE*), 총자산이익률(*ROA*), 총자산의 변화율(*CHTA*), 법인세차감전순이익률의 변화율(*CHBTNI*), 영업현금흐름비율(*OCF*) 그리고 재무분석가수(*ANALCOV*)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한 반면에 부채비율(*LEV*), 법인세부담율(*TAXBURN*)과는 유의한 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주요 변수의 피어슨 상관계수

<표 2>는 모형식에 사용된 주요 변수에 대한 피어슨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TS	RATE1	RATE2	RATE3	LEV	LNSIZE	ROA	CHTA	CHBTNI	OCF	TAXBURN
RATE1	0.032										
RATE2	0.051	0.806									
RATE3	0.001	0.707	0.491								
LEV	-0.047	0.216	0.180	0.102							
LNSIZE	0.065	0.241	0.171	-0.001	0.106						
ROA	0.318	-0.198	-0.171	-0.153	-0.417	0.085					
CHTA	0.091	-0.196	-0.162	-0.169	0.064	0.004	0.304				
CHBTNI	0.199	0.024	0.027	0.023	0.022	0.007	0.391	0.224			
OCF	0.465	-0.046	-0.011	-0.064	-0.183	0.117	0.462	0.027	0.179		
TAXBURN	-0.132	0.152	0.070	0.114	0.074	0.050	-0.075	-0.086	0.030	-0.009	
ANALCOV	0.117	0.124	0.089	-0.054	0.099	0.730	0.120	-0.016	0.024	0.200	0.069

주)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1>의 주석부분을 참조한다. 진한부분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노동조합유무(RATE1), 노동조합가입률(RATE2)과 상근직원률(RATE3)과 통제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유무(RATE1)의 경우 통제변수인 부채비율(LEV), 기업규모(LNSIZE), 법인세부담율(TAXBURN), 재무분석가수(ANALCOV)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총자산이익률(ROA), 총자산변화율(CHTA), 영업현금흐름비율(OCF)과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노동조합가입률(RATE2)의 경우는 부채비율(LEV), 기업규모(LNSIZE), 법인세부담율(TAXBURN), 재무분석가수(ANALCOV)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총자산이익률(ROA), 총자산변화율(CHTA)과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상근직원률(RATE3)의 경우는 부채비율(LEV), 법인세부담율(TAXBURN)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에 총자산이익률(ROA), 총자산변화율(CHTA), 영업현금흐름비율(OCF), 재무분석가수(ANALCOV)와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실증분석을 위해서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통제한 후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조세회피성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노동조합 영향력을 포함하는 기타 통제변수들을 회귀변수로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대한 실증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2. 회귀분석 결과

<표 3>은 노동조합 영향력의 대응치인 노동조합유무(RATE1), 노동조합가입률(RATE2)과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본 회귀분석 결과, 노동조합 영향력의 대응치인 노동조합유무(RATE1), 노동조합가입률(RATE2)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조세회피성향(TS)과는 각각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회귀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연구가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노조기업일 경우 그리고 노동조합가입률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경우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경우, 자신들의 임금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후현금흐름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을 선호하거나 기회주의적 조세회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실증결과인 Chyz et al.(2013)에서 언급한 것과 일관되지 않은 실증결과이다. 즉 미국의 경우 노동조합이 내부의 이해관계자로서, 해당기업의 기회주의적인 조세회피성향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반면,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이 단기적으로 세후 현금흐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노동조합에 비해 한국의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이 미래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미국의 노동조합의 경우 보다 체계적으로 임금협상 등을 함에 있어서, 재무제표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조세회피행위가 기업가치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인지하여 만약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를 실시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를 억제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의 경우 이익단체적 성격으로 임금극대화, 즉 이익극대화를 추구하여 경영자에게 조세부담에 따른 조세회피의 유인이 있을 수 있고, 노동조합이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 자체를 재무제표분석을 통해서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행위가 해당기업의 가치 혹은 위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선호한다면 경영자의 조세회피행위를 묵인 혹은 방조하여 조세회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 중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증가할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3〉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Dependant Variables	TS		TS	
	coef.	t-stat.	coef.	t-stat.
<i>INTERCEPT</i>	-0.058 *	-1.83	-0.067 **	-2.11
<i>RATE1</i>	0.009 ***	3.59		
<i>RATE2</i>			0.013 ***	2.96
<i>LEV</i>	0.010	1.22	0.011	1.36
<i>LNSIZE</i>	0.001	0.72	0.001	1.04
<i>ROA</i>	0.144 ***	4.34	0.140 ***	4.21
<i>CHTA</i>	0.020 **	2.37	0.019 **	2.26
<i>CHBTNI</i>	0.004 ***	3.17	0.004 ***	3.26
<i>OCF</i>	0.322 ***	18.39	0.322 ***	18.35
<i>TAXBURN</i>	-0.083 ***	-7.67	-0.082 ***	-7.53
<i>ANALCOV</i>	0.000	0.02	0.000	-0.08
YEAR Dummies	Included		Included	
Industry Dummies	Included		Included	
Adj.R ²	0.3072		0.3057	
N. of Years	9		9	
N. of Obs.	1,900		1,900	

주) 수정된 결정계수는 각 연도별 회귀분석에서 산출된 수정 결정계수들의 평균값이다.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2>의 주석을 참조한다.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한편 기타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총자산 변화율(*CHTA*), 총자산이익률(*ROA*), 영업현금 흐름율(*OCF*),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변화율(*CHBTNI*)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반면에 법인세부담율(*TAXBURN*)과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부채비율(*LEV*), 기업 규모(*LNSIZE*)는 정(+)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재무

분석가수(*ANALCOV*)는 부(-)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하지 않았다.

<표 3>은 노동조합의 영향력에 대해서 선행연구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된 두 지표인 노동조합 존재유무와 노동조합가입비율을 활용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노동조합 내의 상근직원 수로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표 4>는 추가로 노동조합 영향력의 대용치인 노동조합 내의 상근직원률(*RATE3*)과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표 4> 노동조합 내의 상근직원률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Dependant Variables	TS	
	coef.	t-stat.
<i>INTERCEPT</i>	-0.078 **	-2.48
<i>RATE3</i>	0.531 **	2.42
<i>LEV</i>	0.010	1.31
<i>LNSIZE</i>	0.002	1.46
<i>ROA</i>	0.136 ***	4.11
<i>CHTA</i>	0.018 **	2.20
<i>CHBTNI</i>	0.004 ***	3.35
<i>OCF</i>	0.323 ***	18.42
<i>TAXBURN</i>	-0.083 ***	-7.62
<i>ANALCOV</i>	0.000	-0.15
YEAR Dummies	Included	
Industry Dummies	Included	
Adj.R ²	0.3046	
N. of Years	9	
N. of Obs.	1,900	

주) 수정된 결정계수는 각 연도별 회귀분석에서 산출된 수정 결정계수들의 평균값이다.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1>의 주석을 참조한다.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본 회귀분석 결과, 노동조합 영향력의 대용치인 노동조합의 상근직원률(*RATE3*)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조세회피성향(*TS*)과 5% 수준에서 유의한 회귀계수(t 값=2.42)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서의 <표 3>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 내의 상근직원률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조세회피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타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총자산 변화율(*CHTA*), 총자산이익률(*ROA*), 영업현금흐름율(*OCF*),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변

화율(*CHBTNI*)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에 기업의 법인세부담율(*TAXBURN*)과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부채비율(*LEV*), 기업규모(*LNSIZE*)는 정(+)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상의 실증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노동조합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연구한 Chyz et al.(2013)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한국의 노동조합은 임금극대화 등 단체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보다는 임금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단기적인 세금 후 현금흐름의 증가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며, 노동조합이 기업지배구조의 일부로 경영자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을 묵인 또는 방조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900개의 기업/연도 관측치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실증분석을 위해 노동조합 영향력의 대용치인 노동조합유무, 노동조합가입률, 노동조합 상근직원률과 조세회피성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 분석에서 노동조합 유무와 조세회피성향 사이에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고함으로써 평균적으로 유노동기업은 무노동기업에 비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조합가입률과 조세회피성향 사이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고하여, 노동조합가입률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조합 상근직원률과 조세회피성향 사이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고하여, 노동조합의 상근직원률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증가할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노동조합은 임금극대화 등 조합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고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Chyz et al. 2013)와 차별점을 지니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노동조합이 대리인 비용을 낮추는 감시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것(최정운과 배길수 2011 ; 고영우 2011 ; 안태식 외 2011)과 달리 한국의 노동조합이 조세회피성향과의 관계에서는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는 관련된 선행연구에 추가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이러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더불어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과 관련한 변수 이외에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변수를 통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변수(Omitted Problem)로 인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2009년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가 기업의 의무 공시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연구의 실증분석 연도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의 실증결과가 다른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09년 이후의 경우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이 의무공시사항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세회피성향의 대용치인 Desai and Dharmapala (2009)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성향을 측정함에 있어 실증분석상의 어느 정도의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측정오차가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사전적으로 체계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조세회피를 측정함에 있어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새로 생긴 기업 혹은 노동조합이 생긴 후 없어진 기업에 대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추후 관련된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이 새로 생긴 기업 혹은 노동조합이 생긴 후 없어진 기업에 대해서 추가분석을 실시한다면 보다 풍부한 실증분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더불어 노동조합의 경우 경영자의 특성에 대응하여 설립될 가능성이 있는 내생성이 있는 변수이지만 아직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기업의 결정요인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가 미비함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추후 노동조합 설립의 결정요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조합의 내생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선행연구와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추가적인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지만 추후의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의 세부적인 질적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연·김영철. 2012.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세무학연구 제29권 제2호 : 37-67
- 고영우. 2011. “노동자 영향력이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제29권 : 93-111
- 김장호. 2008. “노동조합 임금효과의 변화”. 노동경제론집 제31권 제3호 : 75-105
- 김진희·정재욱. 2006.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3권 제4호 : 97-123
- 권순원. 2005. “주식회사 미국의 기업지배 구조와 노동조합의 역할”. 국제노동브리프 제3권 제4호 : 95-105
- 박미영. 2012. “감사인특성과 조세회피”. 세무와 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 191-219.
- 박승식·장지인·정길채·배성태. 2006.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4권 제1호 : 213-241.
- 박춘래. 1999. “기업특성과 법인세 회피성향”. 회계정보연구 제11권 : 25-41
- 손판도. 2013. “기업 현금 보유수준과 노동조합의 교섭력과의 관계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1권 제4호 : 183-208
- 안태식·심호식·박진하. 2011. “노동조합이 기업의 공정공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6권 제4호 : 55-94.
- 이명기·이시환·김진산. 2014. “노동조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제21권 제4호 : 83-102.
- 전규안·김철환. 2008.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계산시 과세소득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9권 제3호 : 167-190.
- 전홍민·박한순. 2014. “국민연금이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1권 제2호 : 9-37.
- 정규언. 1993. “법인세 유연화에 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16권 제1호 : 339-361
- 최영기. 2013. 『노사관계 모델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 최정운·배길수. 2011. “노동조합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감시역할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40권 제6호 : 1549-1575.
- 홍영은·박종국·이계원. 2009. “경영자 지분율에 따른 기업 조세전략의 차별적 특성”. 세무학연구 제26권 제4호 : 125-147.
- 한영희·김동하. 2014. “재무분석가의 법인세비용 예측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56권 : 101-120.
- Balakrishnan K., J., Blouin and W., Guay. 2010. Does Tax Aggressiveness Reduce Financial Reporting Transparency? Working pap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 Chen, H. J., M. Kacperczyk, and H. Ortiz—Molina. 2011. Labor Unions, Operating Flexibility, and The Cost of Equity,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46(1) : 25—58.
- Chen, K., X. Chen, Q. Cheng, and T. Shevlin. 2010. Are Family Firms more Tax Aggressive than non Family firm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5(1) : 41—61.
- Chen, Y., S. Huang, R. Pereira and J. Wang. 2011.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Opacity. Working Paper, University of Missouri.
- Clark, K. B. 1984. Unionization and Firm Performance : The Impact on Profits, Growth and Productivity, *American Economic Review* 74 : 893—919.
- Connolly R. A., B. T. Hirsch, and M. Hirschey, 1986, Union rent seeking, intangible capital and market value of the firm,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8 : 567—577.
- Chyz, J. A., Ching Leung, W. S., Zhen Li, O., Meng Rui, O. 2013. Labor unions and tax aggressivenes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80(3) : 675—698
- DeAngelo, H., and L. DeAngelo. 1991. Union Negotiations and Corporate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0 : 3—43.
- Desai, M. A., and D. Dharmapala. 2009.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 : 537—546.
- Faleye, O., V. Mehrotra and R. Morck, 2006, When labor has a voice in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41 : 489—510.
- Freeman, R. B. and M. M. Kleiner. 1999. Do Unions Make Enterprises Insolvent?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4(4) : 510—527.
- Graham, John R., and Alan Tucker. 2006. Tax Shelters and Corporate Debt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 : 563—594.
- Hanlon, M., and S. Heitzman. 2010.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 : 127—178.
- Hilary, G. 2006. Organized Labor and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Financial Markets.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1(4) : 525—548.
- Jensen, M. C., and W. H. Meckling. 1976. Theory of the Firm :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4) : 305—360.
- Karier, T.(1985), Unions and Monopoly Profi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1) : 1335—1364.
- Kim, J. B., Y. Li, and L. Zhang. 2011. Corporate Tax Avoidance and Stock Price crash risk : Firm—Level Analy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0 : 639—662
- Lewis, H.G. 1986. Union Relative Wage Effects : A Surve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iberty, S. E., and J. L. Zimmerman. 1986. Labor Union Contract Negotiations and Accounting Choices. *The Accounting Review* 61(4) : 692–712.
- Ruback, R. S., and M. B. Zimmerman. 1984. Unionization and Profitability : Evidence from the Capital Market.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2(6) : 1134–1157.
- Schwab, Stewart J., and Randall Thomas. 1998. Realigning Corporate Governance : Shareholder Activism by Labor Unions. *Michigan Law Review* 96(1998) : 1018.
- Winnie, L., O. Li., and O. Rui. 2010. Labor Union and Accounting Conservatism. Working paper,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kong.

Labor Union and Tax Avoidance

- Evidence from Korea -

Shin Sang Yi* · Chun Hong Min**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labor union's influence and corporate tax avoidance focusing on Korean empirical evidence. Prior management literatures suggest that existence of labor union is mixed result with the firm value. So accounting and finance papers try to examine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labor union's influence. Also accounting literatures suggest that labor union have a negatively associated with corporate earnings management by playing a monitoring role in a good corporate governance role(Choi and Bae 2011). However there is limited research has been done regarding the labor union's influence and the corporate tax avoidance in Korean empirical evidence.

Using Korean 1,900 firm-year observations between 2000 to 2008, labor union's influenc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corporate tax avoidance. This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existence of labor union can make manager do use corporate tax avoidance which could reduce real cash outflows and the firm's unionization rate is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rporate tax avoidance. This result implies that labor union is interested in after-tax cash flows because labor union just seeks to maximize wages for their short term perspective. Also thi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labor union do not play an active monitoring role regarding manager's opportunistic tax avoidance for their long term perspective.

This study makes several contribution toward accounting and tax literatures. First, U.S. studies shows that labor union has monitoring role toward corporate tax avoidance, however Korean labor union boost up corporate tax avoidance which can enable wage maximization. So regarding this topic, U.S. and Korea has different empirical result then this can show us labor union's behavior toward corporate tax avoidance can be differ from each other. So this empirical result may shed some light on accounting and tax literatures.

〈Key words〉 Labor Union's Influence, Wage Maximization, Corporate Tax Avoidance

* M.S. Student, School of Busines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syend@naver.com,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mchun@cbnu.ac.kr, Corresponding Author